언어도단(言語道斷)의 자리 성막

(출26:1~37)

31.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32.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33.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34.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35.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36.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37.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자리 성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자리 성막'
우리가 읽지 않은 1-14절까지는 성막의 외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30절까지는 조각목 나무 널판으로 벽을 만들어 성막의 골격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비가 4m, 길이가 20m, 높이가 4m 56으로 아파트로 말하면 2층보다 약간 낮은 크기로 성막의 골격을 만들고 그 조각목 널판으로 만들어진 성막의 외부를 휘장으로 덮는 것입니다. 출입구를 제외한 삼면을 휘장으로 덮는데 네 겹으로 덮습니다. 성막을 네 겹의 휘장으로 덮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휘장은 실로 짠 천으로 덮고, 둘째는 염소 가죽으로 덮고, 셋째는 숫양 가죽이고, 넷째는 해달의 반질반질하고 윤기 나는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성막을 덮고 덮는 그 이유는 언어도단의 자리가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하는 한자는, 말 그대로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생트집을 잡을 때에 신문에서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생트집을 듣다보면 말의 길이 끊어져버린다는 것으로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로서는 그 상황을 형언해 낼 수가 없는 것을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야당이 여당의 정책에 대해 기가 막힌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하고, 일본 수상인 아베가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일본의 야당 측에서도 2차 대전의 역사를 망각한 언어도단의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 언어도단심행처멸(言語道斷心行處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도단의 말이 끊어졌다는 것은 맞는데 이 말은 진리의 본체에 도달한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진리는 언어가 다 끊어지는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언어의 세계가 완전히 극복된 경지를 말하고, 그 경지에 도달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는(본체심) 터득한 경지로 언어도단심행처멸(言語道斷心行處滅)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모든 판단과 생각이 다 끊어진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참선(參禪)을 한다고 할 때의 ‘선’은 그 핵심이 언어의 세계를 넘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언어의 세계를 넘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으로, 진리는 언어 세계의 바깥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노자(老子)의 경우도 “언어는 절대궁극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절대궁극을 만나고 깨닫게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서양의 역사 속에서도 언어에 대해 가장 깊이 연구한 분이 있다면 아마 오스트리아 출신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이 “모든 철학은 거짓말이 아니고 다 헛된 말이다”라고 하면서 초기의 사상에서는 철학을 버렸지만 나중에는 철학으로 돌아와서 언어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되면서 “논리철학논고”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저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철학이 다 헛소리이고, 세계(언어)를 초월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그것은 다 헛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언어도단심행처멸이 판단과 사고가 그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언어가 극복된 자리고 본래의 마음(본체심)을 획득한 자리이고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한 자리라고 말하고, 노자도 언어는 절대 궁극을 지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절대궁극은 언어를 초월해서 있다고 하는데 다 맞는 말 같고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언어 자체를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를 깨닫고는 있지만 그 한계를 지적하고 문제시하는 것에 머물러있지도 않고 언어를 극복하는 것

을 과제로 삼지도 않아요. 언어와 관계해서 기독교가 염두에 두는 부분은 도대체 그 언어를 누가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문제시합니다. 도대체 언어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또 서양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과는 반대 입장의 대표적인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언어 사용을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의 핵심으로 언어 사용은 주체성의 표현방식이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신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겔뿐만 아니라 반대 입장에 서는 철학자들도 언어의 의존도에 대해서는 헤겔과 다를 바 없을 만큼 언어의 신격화 현상을 철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십계명 돌판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을 우리는 도덕 윤리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끝내버리는데 이 십계명 돌판은 그렇게 이해하기 이전의 훨씬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바로 언어에 관한 진리를 선언하고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언어를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온 우주를 통틀어 유일한 하나의 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언어를 도둑질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어가 원래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내 멋대로 사용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모든 불행이 다 사라진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언어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언어 때문에 인간만 불행하고 언어 때문에 인간만 지옥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을 가게 됩니다. 약1: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모습이 언어 사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3:5절에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어 때문에 인간만 지옥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을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라고 합니다.
'혀'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혀는 'tongue'인데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지옥 불에 싸이게 하는 것으로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비난, 우울함 이 모든 것이 언어를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생기게 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 언어가 나타난 것으로 그 상황이 진짜 큰일이 난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큰일 났다'고 해놓고 나면 내 마음은 큰일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잘 안 벌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한 달 뒤에는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언어를 활용하면, 실제로 망할지 안 망할지는 아무도 모

르지만 내 마음은 망함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걱정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가 나빠서도 아니고 언어가 잘못되었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어를 도둑질해서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고, 또 언어의 한계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롬10: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언어를 극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요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사람들의 생각은 언어가 진리에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 언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판단도 언어로 시작 됩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들어와야 합니다. "돈이 좋다. 건강이 나쁘다. 병은 나쁘다. 가난은 나쁘다"라는 언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속의 언어가 생각이고 판단이고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언어가 행동입니다. 마음속에서도 언어이고 입 밖으로 꺼내도 언어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언어가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 다양하지만 다 언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믿는 것인데 이 성막이 지성소가 있는 자리로 법궤를 모셔 두고 십계명 돌판을 모셔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도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까지 담고 썼던 모든 언어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어도단의 자리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나쁘거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어를 받아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지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갔다가, 주인이 주는 언어를 받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도둑질한 언어로 판단하고, 내가 도둑질한 언어로 생각하고 내가 도둑질한 언어로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할 때에도 다 도둑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한 언어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관계하면서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고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다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지성소 안에 모셔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언어를 돌려드린다'라는 뜻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끊어지는 언어도단의 자리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들려지는 언어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윤리 도덕 율법 계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공표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놓치니까 우리에게서 행동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어로 주인의 언어를 받아야 그 언어가 몸으로 표현되는 행동이라는 언어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인의

언어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내 속에는 온통 도둑질한 내 나름대로의 언어인 “돈이 최고”라는 판단기준의 언어로 만들어진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왔다가도 부딪혀서 나가게 됩니다. 도둑질한 내 언어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언어가 축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휘장을 왜 네 겹으로 그렇게 거듭해서 덮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조차도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감추고 감추는 것은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될 때에, 절대로 이 세상 기운이 우리 마음에 담겨진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겹의 휘장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외부와의 차단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고, 외부의 기운인 이 세상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기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옮겨 다닙니까? 언어를 통해 옮겨 다닙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설가의 정신, 영, 기운은 소설가의 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운은 우리의 언어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언어 아닙니까? ‘돈이 최고’라는 이 언어 속에 마귀의 기운이 들어있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기운이 차단되지 않고 그대로 옮겨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갖 세상이 내 마음속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 마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생활 속으로 옮기는데 그 마음속에 세상의 언어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휘장을 네 겹으로 강조하신 것이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1:1-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아직 우리 인간 세상의 언어가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이고, 인간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언어가 먼저 계셨습니다. 성막을 네 겹으로 덮고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습니다. 등대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은 완전한 어둠으로 빛이 하나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십계명 돌판이 거기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선민들의 삶의 현장 안에 태초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살았다면 그 삶의 흔적은 내 마음속에 기억으로 되어 있고 기억은 언어로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뭘 했고 상황이 좋다, 안 좋다가 전부 언어로 기억됩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고 태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태초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역사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언어가 중단된다는 것이 바로 태초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태초에 천지창조가 있은 후부터 언어로 인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 안에 태초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살면서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고 오늘의 삶을 계획했던 모든 언어들의 연장선상에서 오지 말라는 뜻으로 휘장을 네 겹을 덮으시며 단절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단절, 단절, 단절, 단절”
내 마음은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던 나의 태초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세상에 대한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언어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내용이고 성막의 휘장을 네 겹으로 덮으신 의미입니다.

이 성막의 의미가 완성된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 개인의 역사의 태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은 이 인간세상의 역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바울은 세상에 대해 죽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나의 삶의 현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그대로 있어요. 단지 내 마음만 태초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한 언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이 침묵합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언어가 죽는다는 것이고, 내 속에 단 하나의 단어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태초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언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진짜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언어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하니 인생이 잘 될 거야”라는 이 언어가 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언어냐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내 언어인데 진짜 하나님께도 이 언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구성하는 언어들은 다 도둑질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어를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 혼자 도둑질해서 헛바퀴를 도느라고 인생이 괴롭고 고된 것입니다.

‘언어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으로 성막을 네 겹으로 덮으신 것이므로 내 마음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건입니다. 주체성은 언어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의 완성은

예수님의 육신이십니다. 그 분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언어의 주인 앞에서 도둑질해서 사용했던 모든 언어가 내게서 죽는다는 이야기고, 내가 태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 마음에서는 세상이 없어지고 태초에서처럼 하나님 한분만이 나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의 현장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직장,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주시고,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 때에, 그것들이 다 이 세상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언어도단의 자리로 언어로 함께 시작된 내 인생의 역사 바깥에 있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은 이제부터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태초의 자리로 들어가서 본래의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언어로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언어를 도둑질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언어가 없는데 나 혼자 그런 언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도둑질한 언어를 죽여 버리세요. 내일이면 또 살아납니다. 마귀에 의해서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의 언어 도둑질이 자꾸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내 도둑질한 언어를 죽이고,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 성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막의 완성과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의 완성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연합함을 생활화함으로 언어도단의 자리 태초의 자리로부터,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받아서 판단, 생각, 말, 행동하며 사는 복지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